

학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혁신학교 종합평가 대상교)

지역	시흥	학교명	서해중학교	운영연차	8년차										
학교비전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 운영으로 행복한 서해 3H														
1. 혁신학교 종합평가 운영 과정															
<div> <div> <div>□ 학교자체평가의 목적 및 주안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존중의 문화에 대하여 되돌아봄. - 즐거운 배움과 진정한 의미의 학생 성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협력적 성찰을 통해 혁신학교로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자체평가 및 콘퍼런스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 및 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혁신학교의 실천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div> <div> <div>□ 교육공동체의 참여 및 종합평가 준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아카데미 기초과정 연수’ 38명 수료 ○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계를 통한 전교사 참여 ○ 혁신학교 만족도 설문 조사 및 결과 공유 ○ 연차별 혁신학교 운영 과제 진단 및 분석 결과 공유 - 전문적 학습공동체 분과별 운영을 통해 혁신학교 운영 과제에 대한 본교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콘퍼런스와 연계하여 운영) - 분과별 진행(1차): 혁신학교 운영 원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혁신학교에 대해 이해 - 분과별 진행(2차):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자료를 기초로 본교의 실태 진단 본교의 우수 사항 및 개선점 논의와 콘퍼런스 주제 도출 - 분과별 진행(3차): 온라인 수업 성찰과 콘퍼런스 주제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div> <div> <div>□ 종합평가 당일(2020. 10. 29.) 운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수업 공개(1교시~5교시) - 등교 학년인 2, 3학년은 수업 전체 공개, 등교하지 않은 1학년은 온라인 수업 공개 ○ 분과별 콘퍼런스 및 전체 콘퍼런스 - 분과별 콘퍼런스(4차): 3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및 발전 과제에 대한 제안 - 전체 콘퍼런스: 분임별 논의 사항 공유 및 본교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혁신학교의 방향에 대한 인터뷰 영상 공유 - 코로나19로 외부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 공유, 실천 가능한 방향 설정 및 나눔 </div> <div> <div>□ 분과별 콘퍼런스 주제</div> <table> <tr> <th>분과</th> <th>논의 주제</th> </tr> <tr> <td>민주적 학교운영체제</td> <td>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td> </tr> <tr> <td>윤리적 생활공동체</td> <td>존중과 배려가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td> </tr> <tr> <td>전문적 학습공동체</td> <td>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료성에 기반한 수업 혁신 방안은?</td> </tr> <tr> <td>창의적 교육과정</td> <td>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td> </tr> </table> </div> </div>						분과	논의 주제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윤리적 생활공동체	존중과 배려가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료성에 기반한 수업 혁신 방안은?	창의적 교육과정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분과	논의 주제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윤리적 생활공동체	존중과 배려가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료성에 기반한 수업 혁신 방안은?														
창의적 교육과정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2. 혁신학교 4년간의 노력과 변화 및 콘퍼런스 결과(혁신학교 운영 원리를 중심으로)

영역	4년간의 노력 되돌아보기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부터 2월 워크숍과 신학년 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학년-학급 단위의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함. 2020년 종합평가 이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학교 비전, 학년 목표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자 함. 전달식 교직원 회의를 자제하고 안전 위주의 교직원 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 교직원 회의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작된 ‘토론과 안전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직원이 안전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그동안 안전 제안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기획회의,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학생회, 학부모회와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등 소협의체를 소통의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 중심의 교무 조직을 2017년과 2018년에 학년 중심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며 학년에서 효과적으로 생활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 12개 학급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공간 운영의 제약으로 학년 중심 체제가 다소 약화됨. 이에 2021년에는 다시 강화된 학년 중심 체제로 전환 예정이며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있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생 자율동아리의 지역축제 참여, 2020년 창체 플러스 마을 교육과정 운영, 마을 교육과정 연구 전학공 모임 등으로 많은 학교 구성원이 마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학교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을 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색하고 있음.
콘퍼런스 주제	
<p>“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비전 공유를 위해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의 비전 설정 및 공유 방식 되짚어보기 2. 교육공동체가 비전을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보기 	
콘퍼런스 결과	
<p>○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 3주체별 해결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급회의 시간을 고정 확보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자치문화를 조성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학생자치를 내실화해야 함. - 학부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담당을 업무 분장에 포함 시켜야 함. - 교직원: 교육과정 운영 시 민주적 방법(구글 설문/SNS)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토론과 안전이 있는 교직원 회의에 수시로 안전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p>○교육 3주체별 비전 수립 및 공유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꿈·끼 탐색 주간을 이용하여 학급회의, 학생자치회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비전 수립 - 학부모: 학교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서, 학년 말에 학부모회회의를 열어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된 비전을 바탕으로 2월 워크숍을 통해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비전 수립 - 완성된 비전을 학생, 학부모와 공유(현수막, 가정통신문 제작 등)하여 교육과정 운영, 학교생활 전반에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영역	4년간의 노력 되돌아보기
윤리적 생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하여 해마다 2월 워크숍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연수를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진행하고 2017년도부터 신학년 적응 프로그램에 서클을 실시하여 학년 초 관계 맺기에 힘을 쏟으며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별 온도차가 달라 지속적으로 생활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교문 아침맞이와 교실 아침맞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교사로 다가가려는 교사의 노력이 학생들의 혁신학교 만족도 설문 결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됨.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아침맞이에 전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는 따뜻함을 보임. 2017년부터 인성에 기반한 학생 성장을 위해 다도를 통한 인성 예절교육, 인성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성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여 인성 신문을 제작하면서 이 모든 교육들이 일회적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종합적 추진이 가능한 컨트론타워 필요성에 따라 학교 전체 생활교육 담당자와 학년생활지도 교사의 연계로 생활지도 지침에 관하여 공통된 생활교육의 기준을 마련함. 학생 대의원회의 결과를 대자보 형식으로 공개하여 학생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시함. 축제, 체육대회, 게릴라 콘서트 등 학교행사에 학생자치회 임원진의 활동은 활발하나 전체 학급 대표들까지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부족함. 이벤트성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학생자치, 학급자치 회의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함. 특히 학급자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담임 시간 등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함. 신학년 학급에서 정한 수업 약속과 생활 약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아 학급별 자치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함.
콘퍼런스 주제	
“존중과 배려가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은?”	
콘퍼런스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해야 할 일: 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사제동행 등) 개발 및 공유, 상담기법을 익히기 위한 연수참여,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참여,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가짐, 공감하려는 자세, 기다려주기, 감정과 상황 경청 훈련, 학생상담, 생활교육 후 상담내용, 상황을 가정으로 연계, 전달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된 학생존중 실천 학부모가 해야 할 일: 학교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를 이해하고 공감, 교사를 신뢰, 자녀와의 대화시간 확대, 밥상머리 교육(가정 내 인성교육) 학생이 해야 할 일: 자기반성(자신 돌아보기),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생각 지니기,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기, 학생 자율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내가 만들어가는 학교, 내가 만든 규칙, 내가 지켜야 하는 규정과 약속이라는 인식의 개선 학교가 해야 할 일: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기회 확대, 학생, 학부모가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마련, 우리학교(나-우리-학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 자율공동체 확대(체육대회 TF팀, 게릴라콘서트 TF팀, 축제 운영을 위한 자율동아리 TF팀 등) <p>교사 권위회복 및 교사 존중 문화 형성. 학교 규정 간소화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를 정해 그것만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조성)</p>	

영역	4년간의 노력 되돌아보기
전문적 학습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전체, 2019년에는 학년별, 2020년에는 주제별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고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내실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정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 활동의 일상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한 협력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함. ◦ 2018년 계절형 주제통합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2019년 학년별 인성 목표를 주제로 통합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년별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이 잘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인 실천 결과를 교사 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성찰을 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교과 동료 장학을 통해 일상적 수업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과별 수업공개주년을 설정하고 수업공개를 실시함.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의 실시는 제안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마을강사 연계수업(온라인 수업)으로 제안 수업 진행 후 교과별 마을 교육과정 적용 사례 등의 수업 나눔을 진행함. 학생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수업 개방과 수업 성찰의 기회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대응 방법 및 해결책을 찾는데 협력하는 모습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이제는 공동연구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실천의 단계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함을 공감함.
컨퍼런스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료성에 기반한 수업 혁신 방안은?”	
컨퍼런스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수업’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체제 운영 - 온라인 수업 환경의 구축으로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업형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수업 혁신 및 동료성 발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 수업 혁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업 공개(수업 짝꿍), 온라인 동료 장학, 온라인 수업 콘서트(나눔에 초점) 등을 통해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 수업 소통 공간을 운영(수업 이렇게 해서 망했다!, 수업 대나무 숲 등)하여 교사 간 서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교내 수업 관련 자율 연수 실시(연수비 지원)를 통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 동료성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동아리(온앤오프) 활성화: 관심 있는 주제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사 자율동아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시간 확보 필요함. 온라인에서는 랜선 회식, 부서 간담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 	

영역	4년간의 노력 되돌아보기
<p>창의적 교육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미래자동차 학교 운영, 예술강사지원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운영, 전문 강사 연계 지도 등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함. ◦ 자유학년제 주제선택과 동아리, 예술체육 과정에 학생 적정 인원수 배정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고려하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무지개반 운영과 또래멘토링 프로그램, 학생들의 사고력 훈련을 위한 독서토론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남음. 학생 특성, 교과 역량 등에 대한 각각도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가 바뀌어도 우리 학교만의 브랜드화된 교육과정 체계를 위한 문화 형성이 필요함. ◦ 학기 말, 학년 말에 운영되는 꿈·끼 탐색 주간에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책자를 만들어 활용하고 합창대회, UCC 만들기 대회 등 학기 중 운영이 어려운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함. 꿈·끼 탐색 주간 운영은 학년별로 운영상 많은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꿈·끼 탐색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자유학기 진로 탐색 수업의 공동연구, 교과별 진로 연계수업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진로 교육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신학기 적응 프로그램을 보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p>콘퍼런스 주제</p>	
<p>“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p>	
<p>콘퍼런스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말 교육과정 평가회: 당해년도 교육과정 재구성 성찰을 기록으로 남기기 - 해를 거듭하며 추가하고 빼는 성찰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다듬어 가기/기다려 주기 - 마을의 교육적 환경 파악(마을에 제안하기, 함께 하기)-지역사회 -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력 격차 해소 문제 고민 ◦ 학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교육과정 / 마을에 대한 이해(행복교육지원센터) - 2학년 교육과정 / 인성(마을교육과정) - 3학년 교육과정 / 환경(에코센터, 조력발전소, 갯골 생태공원) ◦ 지역사회의 인프라(물적, 인적)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교육과정과 연결된 학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정상화(다문화, 학습부진, 개별화반)를 위한 심리적, 학력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학생이 한국 이름으로 학교생활을 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 다문화 학생의 학습 부진으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 수업 -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을 교육과정의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 	

3. 향후 혁신학교 발전 과제

자율학교 운영 만족도 (5점 만점)	교직원	학생	학부모	평균
	4.28	3.82	3.80	3.97

◦ 혁신학교 만족도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 과제를 도출함.

◦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교육 활동의 성과와 한계, 지속가능성의 확인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 구체적 방안 모색
- 학년 중심의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 재배치

◦ 윤리적 생활공동체

- 학급자치, 학생회 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내실화
- 학생자치와 회복적 생활교육의 연계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수업 혁신을 위한 일상적인 수업 개방과 수업 성찰
- 학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공동실천

◦ 창의적 교육과정

- '앓과 삶과 됨'의 특색있는 서해교육과정 만들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형 마을 교육 정착
- 미래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미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

4. 혁신학교 종합평가 총평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못해 다양한 관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구성원 중심의 종합평가여서 4년간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며 평가할 수 있었음.
- 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4년간 노력한 결과를 함께 되돌아보며 잘하고 있는 점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은 함께 노력하자는데 공감하며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 향후 발전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여 앞으로의 교육과정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과정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